

마태오 복음서 4장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마르 1,12-13; 루카 4,1-13)

예수님께서서는 현세적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당신의 영적 능력을 이용하지도 않으시고,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당신을 신비한 방식으로 구원해 주십사고 하느님께 독촉하지도 않으시며,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시겠다고 사탄에게 복종하지도 않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 유혹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제시하며, 하느님의 모든 자녀는 마귀를 이겨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¹⁾

1. 그대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²⁾

- 1) 복음 선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로 나가신다. 광야는 그저 홀로 머물며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심신이 약해질 때이다. 이때 마귀는 그 허점을 노리고 유혹한다.
- 2) 인류의 역사는 첫 인간의 유혹에 무너짐으로써(창세 3장 참조) 하느님과 단절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 당신의 소명을 시작하신다.
- 3) 악마는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첫 인간을 범죄 कै 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퍼트렸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우들을 하느님과 멀어지게 한다.³⁾

2.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사십”은 정확한 날수보다는 매우 긴 시간을 가리킨다.⁴⁾ 여기서는 모세가 산 위에서 지낸 시간을 상기시키거나,⁵⁾ 또는 엘리야가 걸어난 사십 일처럼,⁶⁾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사십 년을 상징할 수도 있다.⁷⁾ 그리고 사십 일은 정화의 시기이다.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6~67쪽, 각주 1 참조.

2) 신명 8,2 : 너희는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3) 1베드 5,8 :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에페 6,10~11 :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4) 창세 7,4 : 이제 이레가 지나면, 내가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탈출 24,18 :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사십 일을 그 산에서 지냈다.

5) 탈출 34,28 :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사십 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6) 1열왕 19,8 :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사십 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3.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⁸⁾

1) 유혹자인 악마가 호칭한 “하느님의 아들”은 단순히 존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 지니신 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혹자는 예수님이 지니신 신적 속성과 능력을 빌미로 시험하는 것이다.

2)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을 위한 빵보다 인간의 본질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신다. 곧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멸망시키실 수 있으신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말씀하신다.⁹⁾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¹⁰⁾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7.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¹¹⁾

1)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인용하는 악마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의 더욱 근본적인 의미를 끄집어내어 대답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신다.¹²⁾

2) 하느님께서 어디까지 참으시나 보려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느님의 선하심을 시험해서도 안 된다.¹³⁾

7) 민수 14,34 :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사십 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너희는 사십 년 동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8) 신명 8,3 :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9) 마태 10,28 :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10) 성전 꼭대기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다.

이사 52,1 :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온아, 힘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네 영화의 옷을 입어라.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 들지 않으리라.

11) 1코린 10,9 :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1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7쪽, 각주 7.

13) 위, 각주 8 참조.

3) 성경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빛 아래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알아들어야 한다.

8.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¹⁴⁾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¹⁵⁾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¹⁶⁾

1) ‘경배하다’는 완전한 복종의 몸짓을 뜻한다.

2) 악마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악마에게 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세상 것이 하느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참 신앙생활은 선물로 주신 세상 것을 하느님 뜻대로 선행해야 하며,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야 한다.

11.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시중을 들다’는 ‘식탁에서 시중들다. 먹을 것을 주다’를 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사들에게서 먹을 것을 받으신다. 이는 사자(使者)들을 통하여 하느님에게서 받음을 뜻한다. 이 음식은 악마의 제안을 거슬러, 당신 자신이 직접 마련하기를 거부하신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도 하느님께 양식을 청하여 받으라고 가르치신다.¹⁷⁾

14) 다니 3,5 : 뿔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 상에 절하시오.

1코린 14,25 : 또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절하면서, “참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묵시 4,10 : 스물네 원로는 여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여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15) 마태 16,23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16) 신명 6,13 :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17) 앞, 68쪽, 각주 12.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마르 1,14-15; 루카 4,14-15)

12.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¹⁸⁾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서
어 자리를 잡으셨다.

- 1) ‘물러가다’는 보통 위험을 피하여 물러감을 뜻한다.¹⁹⁾
2) 카파르나움은 갈릴래아 호수 북동쪽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4.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5.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서,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이교(異敎)의 “어둠”에 가장 크게 위협받는 지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민족들의 갈릴래아”를 선택하신다.²⁰⁾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 1)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설교 직무를 장엄하게 개시하셨음을 뜻한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²¹⁾
2) “회개하여라”는 선포는 세례자 요한의 첫 음성과 같다. 회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3)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18) 마르 6,17 :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 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요한 3,24 :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19) 위, 68쪽, 각주 14 참조.

20) 위, 각주 20 참조.

21) 위, 각주 21 참조.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마르 1,16-20; 루카 5,1-11)

18.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²²⁾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20.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21.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22.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 1) “따르다”는 제자들의 스승에게 드러내는 존경과 순종, 그리고 스승을 위하여 수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를 뜻한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또 부름을 받은 이는 대부분 곧바로 순종함으로써 응답한다. 그리고 제자들은 단순히 청중으로서가 아니라, 협조자로서, 하느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분 수확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바로 그분과 결부시킨다. 예수님을 따름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²³⁾
- 2) 부름심에 따름은 주저함 없이 곧바로 이루어져야 하고, 세상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예수님과 군중(루카 6,17-19)

23.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²⁴⁾
24.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²⁵⁾
25. 그러자 갈릴래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22) 요한 1,40-41 :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23) 앞, 69쪽, 각주 27 참조.

24) 마르 1,39 :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25) 마르 6,55-56 :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 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 1)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하라고 외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병자와 허약한 이들 모두 고쳐 주셨다.
- 2) “모두”는 예수님의 보편적 행위를 뜻한다.
- 3) 복음 선포 외에 병을 고침도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뜻한다.²⁶⁾
- 4)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것이 복음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26) 앞, 각주 29 참조.